〔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5, No. 11 (2011) p.1377~1385
http://dx.doi.org/10.5850/JKSCT.2011.35.11.1377

# 여군의 군복에 대한 인식과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관한 연구

허은영 · 진기남† · 고애란* · 김진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 A Study on the Military Uniform Related Attitude and Professional Identity

**Eunyoung Heo · Kinam Jin† · Aeran Koh* · Jinjoo Kim**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접수일(2011년 8월 26일), 수정일(2011년 10월 3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5일)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f the uniform-related perceptions influence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on 346 female nursing officers at military hospital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basic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clothing benefit, perception of nursing uniform, and perception of the officer uniform. For the data analysis, we used paired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a paired t-test, we found the difference in function and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uniforms and officer uniform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uniform-related percep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professional identity. The nursing uniform explained the major portion of vari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subsequently, the improvement of uniforms can enhance professional identity.

***Key words***: Military uniform, Professional identity; 군복, 전문직 자기이미지

## I. 서 론

첨단화, 정보화 되고 있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국방개혁으로 인해 전문직업군인과 자발적 군입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의 자긍심도 고취되고 있다. 또한 민주병영문화를 지향하는 변화로 인해, 섬세하고 배려 깊은 여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우수 여성인력의 군영입은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병력확보 정책의 산물이다(Won, 2006).

육군 여군병과가 1989년 해체되면서 몇몇 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가 여군에 개방 되었다(The ROK Army Headquarters, 2000). 이로 인해 1999년 1,183명이었던 육군의 여군 장교 수가 2006년도에 2,288명으로 증가하였다(Rhu, 2003).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의 7%까지 여군의 수를 확대하겠다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한 연구결과(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05)는 조사대상 부대원의 70%가 여군의 증가로 부대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보였고, 특히 병사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여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직무만족, 성 역할 등에 머물러 있었으며, 군복에 대한 연구는 전투기능성 향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군복은 군인이 입는 제복의 총칭으로서, 단순히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구별기능을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군복은 국가의 자주의식을 대표하고, 문화의 전통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힘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군복은 피지배자에게 지배자의 권력을 각인하고 심리적으로 묵인케 하는 합법적인 근거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명령의 수행을 이끌어낸다(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즉 군복은 군의 위계질서를 공공히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주는 유니폼이다(Shin, 1998).

Roach and Eicher(1965)는 유니폼이 '집단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라 하였다. Joung(2000), Kang(2003), An(2007) 등의 선행연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nkn@yonsei.ac.kr

구에서는 유니폼의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의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유니폼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사, 간호사, 호텔 및 항공 승무원 등의 서비스 직업군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군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장교복은 군에 복무하는 장교 계급의 군복으로 정복, 예복, 근무복, 전투복, 방한복, 야전상의, 외투, 우의 등의 기본복장과 행사복, 특전복 등의 특수복장으로 나누어진다(Choi et al., 2003). 간호복은 장교 복제 중 근무복에 속하며, 의무시설에서 간호 장교가 근무 중 착용하는 것이다(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98). 장교복의 정복이 계급적 권한의 상징적 요소가 강하다면, 간호복은 서비스의 상징적 요소가 강하다. 그런데 각기 다른 상황에서 착용하게 되는 두 가지 유니폼과 관련하여 의복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기능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

양적으로 증가되는 여군 장교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전문직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05). 전문직 자기이미지는 사회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 부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자세와 경험이 섞여서 형성된 자기직업에 대한 태도이다(Beijaard et al., 2004).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업무의 성격, 조직 내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이 주요 변수로 다루어졌고, 최근에 와서 유니폼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간호사 집단에 관한 연구들(Jung, 2000; Seo et al., 2010)이 많은데, 간호사 유니폼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여군의 병과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간호 장교를 대상으로 장교복과 간호복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복에 대한 의류학적 접근을 통해 그 가치를 고찰하고, 군복무 만족도 및 전문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군복

군복이란 군인이 입는 제복의 총칭으로, 넓은 의미로는 군모, 군화, 계급장, 각종 표지장 및 기타 인가된 부수물 등을 포함한다. 군인 복제는 이러한 군복의 제식과 복장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 것으로서 해방 이전은 일본군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나, 1946년 9월 1일부터 국군복에 준한 복제로 개정되었다(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1948년 5월 1일에 제1육군병원이 창설되고 간호 장교가 현지 임관형식을 빌어 창시되면서 여군 군복 복제사가 시작되었다. 1959년 2월 여군의 복장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별도의 규제가 없어 여러 복장이 공존하였으며, 1964년에는 남군과 여군의 군복 규정이 통합되었다. 이후 미군의 모방이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복제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복에 대한 급격한 개혁이 1971년, 1973년, 1975년, 1977년 4차례에 걸쳐 대통령령에 의한 군인 복제령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1월 대통령령 제9713호로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앞세운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장교 복제가 정립되었다(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군복은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의 문화적인 사명을 표출한다(Koo, 2002). 이는 이윤적 관점이 배제되어 있으나, 상징적인 기능이 크게 작용한다. 타 직업군의 유니폼이 경영자적 관심이나 실용적 관점이 크게 개입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Park, 2004). 이것은 군조직의 정체성이 군복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유니폼인 군복의 사회적 기능, 즉 조직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외적기능과, 근무자세와 소속된 집단의 주인의식, 긍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내적기능(Bae, 1983)을 설명하는 것이다.

군복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군복의 역사와 실태(Kim, 1996; Lee & Park, 1996; Lee & Han, 1995), 군복의 디자인(Hong, 2002; Jin & Hwang, 2006; Kwak, 1999; Kwon & Ha, 2006; Park, 2010), 군복의 소재 및 기능성(Shim, 2004; Shin, 2003), 군복의 적합성(Chang et al., 1999)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은 군복의 역사 및 외형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유니폼으로서 차별되는 군복의 사회적인 기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 2. 간호사복

현재 국내의 간호 장교 간호복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일반 병원의 간호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간호복의 연구는 자연과학적인 주제를 다룬 연구들과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다룬 연구들

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자연과학적인 주제는 착용실태와 디자인 개발, 직물디자인, 치수체계, 소재연구의 5가지 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Kim & Lee, 2011).

반면, 간호복과 관련된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주로 간호복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간호복의 만족도(Kang, 2003)나 전문직 자기이미지(Jung, 2000; Seo et al., 2010)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한편, 2000년 이후부터는 기능성과 편이성, 심미성이 향상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의료진복(의사가운, 간호사 근무복, 수술복, 의료보조사복)의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Park & Lee, 2011).

### 3. 전문직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정해준 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해 지각된 자기 자신이며(NewCombe, 1968), 개인의 객체 혹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79).

한편 전문직이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Park(1993)는 전문직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전문직 자기이미지는 사회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 부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자세와 경험이 섞여서 형성된 자기직업에 대한 태도(Beijaard et al., 2004)로 설명할 수 있다.

전문직 자기이미지와 유니폼의 관계는 Jung(2000), Seo et al.(2010)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의료분야 전문직인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에 한정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전문직 자기이미지에는 개인적 가치 및 업무 성격, 과거의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Beijaard et al., 2000; Dobrow & Higgins, 2005; Fagermoen, 1997; Harmer, 2010; Negishi et al., 2010), 제복을 주요 변수로 다룬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니폼에 대한 선행연구조차 의사, 간호사, 호텔 및 항공승무원(Jung, 2000; Lee, 2000; Lee, 2008; Seo, 2001) 등의 서비스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었고, 군인의 유니폼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간호복과 장교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간호복과 장교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 특성, 의복추구혜택, 유니폼 인식, 전문직 자기이미지를 고려하였다. 태도 관련 변수들의 경우,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기본적 특성으로 나이, 학력, 계급과 복무 형태를 고려하였다. 나이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학력은 대졸이 0값이고 대학원 이상이 1값인 모조변수로 측정하였다. 계급은 소위와 중위의 모조변수를 두 개 만들고, 대위는 준거집단으로 처리하였다. 복무 형태 변수는 장기나 복무 연장자가 1값을 갖고 단기는 0값을 갖는 모조변수로 하였다.

의복추구혜택은 신체적 외모와 관련하여 의복을 통해 기대하는 잇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Hwang(2003), Koh et al.(2002), Cho and Ko(2001)의 연구에서 쓰인 의복추구혜택 측정도구로부터 1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개성표출, 보완추구, 매력표출, 편안함 추구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었고, 이 요인들의 Chronbach's α는 각각 0.81, 0.76, 0.71, 0.73이었다.

유니폼의 인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니폼 각각의 사회적 기능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유니폼의 기능 인식은 Nelson and Bowen(2000), Rafaeli(1993)를 참조하여 장교복과 간호복에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장교복을 착용하면 군에 귀속감이 생긴다', '장교복을 착용하면 내 행동에 절도가 생긴다' 등의 10문항을 질문하여 측정하였으며, 간호복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각 지수의 Chronbach's α는 0.82, 0.82로 동일하였다.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는 Chung and Lee(2010)의 도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이 항목을 장교복과 간호복 두 군복에 적용하였다. '장교복은 입고 벗기 편리하다', '장교복은 착용하고 움직이기 편리하다'를 포

함한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간호복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장교복과 간호복에 대한 각 지수의 Chronbach's α는 0.84, 0.87이었다. 기술적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군복 착용 시의 불편한 점을 기술토록 하여 두 군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문직 자기이미지는 사회가 해당 전문직에 대해서 부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자세, 경험이 섞여서 형성된 자기직업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Pavalko(1971)의 직업-전문직 연속모형에 근거해 직업의 사회적 지위 평가요소를 추가한 Park (1993)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전문직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간호 장교직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간호 장교직은 군의 진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등의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의 Chronbach's α는 0.88이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각 사단 및 전·후방 국군병원 간호병과의 여군 장교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우편과 전자우편, 직접방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이였다. 총 360부를 작성배부하였으나 응답표기 오류를 보인 14부를 제외한 34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짝표본 검정(paired t-test)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군을 연구자가 일련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모델의 결정계수 변화를 통해 각 모델별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 크기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74.3% (254명)로 30대 이상(25.7%, 88명)보다 많았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대학원 이상(13.7%, 47명)보다 대졸자가 86.3%(295명)로 더 많았다. 응답자가 속한 계급은 소위(12.6%, 43명), 중위(41.6%, 142명), 대위 이상(45.7%, 156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복무 구분에서는 단기가 57.6%(179명), 장기, 복무 연장은 42.2%(132명)를 나타냈다(Table 1).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 Classification | | Frequency | % |
|---|---|---|---|
| Age | 20-29 | 254 | 74.3 |
| | 30 or above | 88 | 25.7 |
| | Total | 342 | 100.0 |
| Education | Undergraduate school | 295 | 86.3 |
| | Graduate school | 47 | 13.7 |
| | Total | 342 | 100.0 |
| Rank | Second lieutenant | 43 | 12.6 |
| | First lieutenant | 142 | 41.6 |
| | Captain or above | 156 | 45.7 |
| | Total | 341 | 100.0 |
| Service type | Short-term | 179 | 57.6 |
| | Long-term | 132 | 42.4 |
| | Total | 311 | 100.0 |

### 2. 간호복과 장교복의 기능 차이 분석

이 연구에서 간호복과 장교복의 기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유니폼에 대해 짝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군에 대한 귀속감과 행동의 절도, 자신감, 적극적 행동, 부하의 업무 복종, 군의 위계질서, 군인다운 이미지는 장교복을 입었을 때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군병원의 다른 직종과 구분되는 것, 친근한 이미지는 장교복보다 간호복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간호복과 장교복의 만족도 차이

간호복과 장교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짝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장교복보다 간호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입고 벗기 편리함, 움직이기 편리함, 업무하기 편리함, 공기가 잘 통함이었다.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장교복에서 간호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소재의 색상이 마음에 듦, 형태가 마음에 듦, 땀 흡수가 잘됨, 봉제 상태가 좋음이었다.

**Table 2. Paired t-test of uniform function**

| | Nurse uniform | Officer uniform | t |
|---|---|---|---|
| Affiliation with army | 3.35±0.76 | 4.09±0.67 | −15.20*** |
| Temperance in behavior | 3.19±0.81 | 4.13±0.63 | −18.86*** |
| Self-confidence | 3.18±0.77 | 3.76±0.78 | −11.46*** |
| Professional pride | 3.46±0.77 | 3.42±0.78 | 0.64 |
| Active behavior | 3.40±0.79 | 3.55±0.81 | −2.69** |
| Obedience of subordinates | 2.99±0.86 | 3.76±0.78 | −13.70*** |
| Differentiation from others | 4.13±0.85 | 3.01±1.01 | 14.66*** |
| Maintaining hierarchy | 2.93±0.87 | 3.71±0.75 | −13.93*** |
| Intimate image | 3.51±0.88 | 2.64±0.82 | 14.39*** |
| Army image | 2.50±0.85 | 4.03±0.75 | −24.60*** |

**$p$<.01, ***$p$<.001
two-tailed test

**Table 3. Paired t-test of uniform satisfaction**

| | Nurse uniform | Officer uniform | t |
|---|---|---|---|
| Easy to wear | 3.52±0.82 | 2.44±0.77 | 18.57*** |
| Easy to move | 3.29±0.93 | 2.33±0.78 | 15.36*** |
| Easy to work | 3.19±0.94 | 2.31±0.76 | 14.59*** |
| Color | 2.64±0.94 | 2.96±0.81 | −5.481*** |
| Sense of touch | 2.44±0.88 | 2.50±0.77 | −1.26 |
| Shape | 2.73±0.90 | 3.01±0.83 | −5.42*** |
| Suction of sweat | 2.02±0.76 | 2.15±0.64 | −2.65** |
| Air flow | 2.43±0.88 | 2.22±0.69 | 4.15*** |
| Needle work | 2.81±0.88 | 2.98±0.84 | −3.08** |
| Seam | 2.99±0.86 | 2.65±0.75 | 6.73 |
| Deformation after laundry† | 2.75±0.99 | 2.48±0.72 | 5.01*** |
| Size reduction after laundry† | 2.44±0.89 | 2.23±0.56 | 4.62*** |
| Contamination† | 4.04±0.86 | 2.39±0.73 | 25.46*** |
| Wrinkles† | 3.67±0.98 | 3.11±0.91 | 7.86*** |

**$p$<.01, ***$p$<.001
two-tailed test
†Negative expression

세탁 후 형태가 뒤틀림, 옷이 줄어듦, 오염이 잘 됨, 구김이 잘 감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간호복에서 장교복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간호복은 편리함에서 장교복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세탁 및 관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장교복은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간호복과 장교복 착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한 문항의 응답(중복응답)은 <Table 4>와 같다. 간호복에 대해서는 관리의 불편함에 대해 96명이 응답하였다. 주된 내용은 간호 작업환경에서 오염이 쉽게 된다는 것과 구김, 세탁 후의 변색 등 이었다. 또한 50명이 응답한 색상에서 오는 불편함의 내용은, 흰색의 상의로 인해 생기는 속옷 비침, 오염, 탈색, 변색 등이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47명의 주된 의견은 속옷 비침과 주머니의 부재, 지퍼의 위치, 허술한 봉제로 인한 뜯어짐, 짧은 상의로 인한 활동의 제한 등이었다. 기능성에 대한 불편함도 43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땀 흡수와 통풍이 안 된다는 것과 하의의 계절별 구분이 없어 방한이 안 됨 등이었다.

**Table 4. Inconvenience in wearing a uniform**

(Unit: Person)

| | | Nurse uniform | Officer uniform |
|---|---|---|---|
| Inconvenience† | Color | 50 | 2 |
| | Design | 47 | 73 |
| | Functionality | 43 | 38 |
| | Care | 96 | 8 |
| | Other reasons | 2 | 1 |

†Multiple answers

반면 장교복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응답(73명)해 주었다. 주된 내용은 견장과 같은 부착물이 많아 불편하다는 것과 탈복의 어려움, 맞춤에 여유가 없어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 원단이 무겁고 거칠어 피부에 자극이 됨 등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장교복의 기능성 불편함에 대한 내용은 간호복과 마찬가지로 신축성과 땀 흡수, 통풍성과 방한성이 주를 이루었다.

### 4.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 장교의 기본적 특성, 의복추구혜택, 유니폼 인식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기본적 특성인 나이, 학력, 모조변수인 소위, 중위 그리고 복무 구분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소위, 중위가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급이 소위와 중위인 집단에서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2단계에서는 의복추구혜택의 4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의복추구혜택의 4가지 하위요인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단계에서 나타났던 소위, 중위와 전문직 자기이미지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3단계에서는 간호복의 기능과 만족도 변수들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간호복의 기능이 전문직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professional identity**

| Independent variables | Model 1 β | S.E. | Model 2 β | S.E. | Model 3 β | S.E. | Model 4 β | S.E. |
|---|---|---|---|---|---|---|---|---|
| Basic characteristics | | | | | | | | |
| Age | 0.19 | 0.11 | 0.20 | 0.11 | 0.16 | 0.10 | 0.12 | 0.10 |
| Education | 0.21 | 0.11 | 0.20 | 0.11 | 0.21* | 0.10 | 0.15 | 0.10 |
| Rank (second lieutenant=1) | 0.34* | 0.14 | 0.36* | 0.15 | 0.22 | 0.13 | 0.15 | 0.13 |
| Rank (first lieutenant=1) | 0.20* | 0.09 | 0.20* | 0.09 | 0.12 | 0.09 | 0.07 | 0.09 |
| Service type (long-term=1) | −0.07 | 0.10 | −0.09 | 0.10 | −0.14 | 0.09 | −0.16 | 0.09 |
| Clothing benefit | | | | | | | | |
| Individuality | | | 0.07 | 0.07 | 0.05 | 0.07 | 0.05 | 0.07 |
| Supplementation | | | 0.08 | 0.06 | 0.11 | 0.06 | 0.09 | 0.06 |
| Attraction | | | −0.02 | 0.05 | −0.04 | 0.05 | −0.05 | 0.05 |
| Convenience | | | 0.07 | 0.05 | 0.03 | 0.05 | 0.04 | 0.05 |
| Perception of nurse uniform | | | | | | | | |
| Function of nurse uniform | | | | | 0.43*** | 0.06 | 0.34*** | 0.07 |
| Satisfaction with nurse uniform | | | | | 0.05 | 0.06 | −0.03 | 0.07 |
| Perception of officer uniform | | | | | | | | |
| Function of officer uniform | | | | | | | 0.16* | 0.07 |
| Satisfaction with officer uniform | | | | | | | 0.21* | 0.09 |
| $R^2$ | 0.05 | | 0.07 | | 0.23 | | 0.27 | |
| $R^2$ change | - | | 0.02 | | 0.16 | | 0.04 | |
| F | 3.13** | | 2.45** | | 7.84*** | | 8.10*** | |

*$p$<.05, **$p$<.01, ***$p$<.001
two-tailed test

자기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복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까지 유지되었던 전문직 자기이미지와 계급에 대한 유의성은 간호복 인식이 통제됨에 따라 사라졌고,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3단계에서 결정계수는 이전 단계에 비해 3배 이상인, 0.16만큼 증가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장교복의 기능과 만족도 변수를 추가하였다. 장교복의 기능과 만족도 모두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교복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단계에서도 유지된 전문직 이미지와 간호복 기능의 유의성을 통해, 간호복에 대한 높은 인식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높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모델의 결정계수는 0.27이며, 이는 이 모델의 설명력이 27%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단계에 걸쳐 투입된 변수 중 종속변수의 변이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은 간호복 인식 중에서 간호복의 기능이었다.

##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여군 중 간호병과의 장교를 대상으로 두 종류의 군복에 대한 만족도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전문직 자기이미지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후방 사단 의무시설 및 군병원 간호 장교 346명을 대상으로 얻은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군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여군 장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장교복을 입었을 때 군에 대한 귀속감, 절도, 자신감, 위계질서, 군인다운 이미지 등을 간호복보다 더 느꼈다. 이러한 기능은 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미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간호복을 통해서는 군병원의 다른 직종과 구별, 친근한 이미지 등을 상대적으로 더 느꼈다. 간호복의 이러한 기능은 주로 주위 사람에 미치는, 즉 외적인 기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군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간호복은 탈의 및 착복, 움직임 그리고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며, 통풍이 잘되는 측면에서 장교복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에 장교복은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셋째,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복의 인식과 장교복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간호복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혹은 장교복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결과는 유니폼이 자신이나 주위의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Seo et al.(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장교복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 수준이 올라갔다. 이 결과도 Seo et al.(201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간호복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는 간호복 인식이 장교복 인식에 비해서 전문직 자기이미지의 변이를 더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여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조직관리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어온 군복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었다. 군의 사기 진작은 무기체계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한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군복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상승을 통한 군인 개개인의 사기 진작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복 착용자들의 업무 상황과 이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복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간호복의 편리함과 장교복의 디자인적 측면에서 좋게 평가받은 면을 고려하여 각각의 군복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군복 인식과 전문직 자기이미지와의 관계를 밝혀내기는 하였지만, 군복의 비전투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희박하여 타 연구와의 비교 고찰이 어려웠다. 둘째, 표본 선정 자체가 간호라는 한 병과에 국한되어 여군 장교 전체의 대표성을 띄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다음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군의 전문직 자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현재 군에서 착용되고 있는 각종 군복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복과 전투복, 취사병의 조리복과 근무복 등 계급과 병과를 아우르는 분석을 통하여 각 전문 병과별 전문직 자기이미지 상승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An, C. H. (2007). *Development of uniform design of nurses in the senior-specialized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Bae, C. B. (1983). A study on the uniform working on C.I.P for modern enterprise-centered the uniform design in 'K' financial institutions. *Design Review*, *2*(1), 219–234.

Beijaard, D., Meijer, P. C., & Verloop, N. (2004). Reconsidering research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0*(2), 107–128.

Beijaard, D., Verloop, N., & Vermunt, J. D. (2000). Teach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An exploratory study from a personal knowledge perspectiv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7), 749–764.

Chang, J. H., Jung, H. J., & Kim, E. K. (1999). A study on physiological responses and comfort sensation of military uniform. *Human Life Science*, *2*, 217–234.

Cho, S. M., & Ko, A. R. (2001).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Choi, J. S., Choi, H. S., & Lee, K. M. (2003). A study on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army's combat unifor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3*(5), 141–153.

Chung, I. H., & Lee, Y. J. (2010). Consumer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and hospital patient gow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3), 401–410.

Dobrow, S. R., & Higgins, M. C. (2005). Developmental network and professional identity: A longitudinal study.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0*(6/7), 567–583.

Fagermoen, M. S. (1997). Professional identity: Values embedded in meaningfu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434–441.

Harmer, V. (2010). Are nurses blurring their identity by extending or delegating roles? *British Journal of Nursing*, *19*(5), 295–299.

Hong, S. A. (2002). Development of the military clothing and 3D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9*(4), 273–276.

Hwang, J. S. (2003). The effect of value on clothing benefits sought by university students purchasing clothing through inter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1), 154–161.

Jin, S. M., & Hwang, J. Y. (2006). A study on the camouflage pattern for the Korean arm forces unifo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7*(3), 511–522.

Joung, J. S. (2000). *A study on uniform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imag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Jung, J. S. (2000). *A study on satisfaction about uniform and professional self-imag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ang, M. J. (2003). *A study on preference of nurse uniform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Kim, J. J. (1996). *A study on the military uniforms of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im, M. S., & Lee, J. R. (201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omestic medical atti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5), 612–620.

Koh, A. R., Nam, M. W., & Cho, Y. J. (2002). A study on apparel benefits and buying behavior according to values and lifesty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5), 119–132.

Koo, J, W. (2002). *The design study for improvement of the personal equipment in ROK: Focusing on armor and personal accesso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uwo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98). *History of military costume in Korea-Modern day.*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2005). *Armed service system improvement plan for female soldiers: Focused on human resources and welfare condition.*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wak, H. J. (1999). *Fashion design study applying military look: Center on the ornamental characteristics from military unifor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won, S. H., & Ha, J. S. (2006). A study on modern military uniform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9), 143–156.

Lee, E. S., & Park, J. O. (1996). A study on the armour of Great Britain-From the ancient to the middle ag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4), 133–144.

Lee, J. K. (2000). *The effects of clothing style and color of doctor's gown and perceiver variables on impression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Lee, M. J. (2008). *Job satisfaction measured in relation to the flight attendant's uniform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Lee, S. H., & Han, M. S. (1995). A semiotic analysis on the military uniform: Focusing on the last period of Korean empir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3*(1), 27–40.

Negishi, K., Asahara, K., & Yanai, H. (2010). Developing a

professional identity scale 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professional identity of government-employed public health nurses.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57*(1), 27–38.

Nelson, K., & Bowen, J. (2000). The effect of employee uniform on employees.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41*, 86–95.

NewCombe, T. M. (1968). *Social psychology*. New York: Wiley.

Park, B. (2010).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vy unifor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Park, C. Y. (1993). Changing phase of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social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hysici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7*, 219–244.

Park, J. H., & Lee, J. R. (2011). Analysis on patent trends for medical clothing of Korea and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4), 488–500.

Park, S. H. (2004). A study in clothing for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6), 13–21.

Pavalko, R. M. (1971). *Sociology of occupational and professions*. Itasca: F. E. Peacock Publishers Inc.

Rafaeli, A. (1993). Dress and behavior of customer-contact employees: A framework for analysis. *Advances in Services Marketing and Management*, *2*, 175–211.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Rhu, Y. S. (2003). *Gender politics in the Korean militar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female offic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oach, M. E., & Eicher, J. B. (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Wiley.

Seo, J. H. (2001). *The influence of employee's attire on the impression format for hot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Seo, J. H., Jin, K. N., & Yun, C. H.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dental hygienists' uniforms on professional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8), 1331–1340.

Shim, Y. W. (2004). *The study on the camouflage pattern for Korean military unifor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Shin, D. J. (2003). *The study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rmal properties of military uniform's fabr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Shin, Y. S. (1998). *Cultural psychology of costumes from cultural anthropology*. Seoul: Kyomoonsa.

The ROK Army Headquarters. (1980). *Korean army's costume history*. Gyeryong: The Central Force for National Defense.

The ROK Army Headquarters. (2000). *Army 50 years of the evolutionary history of female soldiers*. Gyeryong: The Central Force for National Defense.

Won, H. Y. (2006). *Armed service system improvement plan for female soldiers: Focused on human resources and welfare condition*. Bucheon: Congress Members' Office of Won, H. Y.